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20일 (음력 3월 5일) 금요일

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 오늘 결판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주자들. 왼쪽부터 가나다순으로 강기정, 양항자, 이용섭 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 운명의 날이 왔다.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20일 오후 9시에 발표된다.

1차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와 원샷 경선으로 끝날 지, 과반 득표자가 없어 1,2위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경선기간 불거진 각종 이슈가 미칠 파장과 권리당원들의 표심, 후보간 연대 등 변수가 워낙 많아 결과는 예측불허 안개 형국이다.

1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18~20일 사흘간 강기정·양항자·이용섭(가나다순)에 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이 진행 중이다.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시민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정해진다. 권리당원은 4만 5000명에 이른다.

경선 결과는 20일 오후 9시에 중앙당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차 경선에서 과반(50%) 득표자가 없으면 23~24일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강 후보는 "관세 뒤집기에 성공했다", 양 후보는 "SNS 돌풍이 불고 있다", 이 후보는 "본선거 직행을 확산한다"며 막판 표심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강 후보는 당심(黨心), 즉 상대적 강점을 지닌 권리당원 표심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고 양 후보는 SNS를 기반으로 당심과 민심(民心)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시민여론조사의 우위를 승리의 지렛대로 자신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각 캠프별 자체 분석과 구글 트렌드 빅데이터, 지역별 지지 기반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경선에서 1, 2위의 격

‘원샷’ vs ‘결선’ 결과, 오후 9시 발표
1·2위 5~10% 이내 승부...결선행 분석도
조직표 · 지역별 표심 · 각종 악재 ‘변수’

차가 10%포인트 안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5% 이내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과반 득표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가 탈당 전력으로 10% 감점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40%대 중반과 30%대 후반으로 1, 2위가 형성되고, 결선 투표 시 3위 후보자 지지표의 항배에 따라 당락이 요동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관전포인트는 역시 다양한 변수다. 우선 조직표가 관건이다. '민주당 경선은 조직선거라는 게 당 안팎의 고정사실화된 정 의다. 4만5000명에 이르는 권리당원 표심과 함께 일반시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역시 '민주당 지지층'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민주당 집안선거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3분 남짓한 ARS 조사를 끝까지 듣는 인내야 필요하다. 결국 총성도 높은 지지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승부처'라는데 후보들이 공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령대, 성별, 지역별 지지성향도 관심사다. 특히 지역별 지지를 경쟁이 뜨거운데 강 후보는 3자 후보 단일화 후 북구와 남구, 광산구 일부에서 지지층이 확대된 것

으로 보고 있고, 양 후보는 서구를 주된 기반으로, 이 후보는 동구와 광산구를 표방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는 단일대오를 형성한 민행배 전 광산구청장의 광산 지지층을 얼마 만큼 흡수하느냐와 북구지역 일부 반기류를 어떻게 극복할 지, 양 후보는 5개 구로의 표 확장과 여성층의 지지, 이 후보는 '대통령'이 포함된 직함의 기대효과와 각종 악재를 딛고 과반에 성공할 지가 성패의 열쇠가 되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끊이지 않은 각종 악재도 변수다. 김·경 수사가 진행중인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이 우려했던 대로 권리당원 명부를 무기로 한 구청장, 광역·기초의원 출마자 쏙세우기로 까지 부작용이 현실화되면서 각급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경선 이후 불공정, 부정 선거 논란으로 번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두환 정권 청와대 사정서판실 근무경력을 둘러싼 부역 논란과 '가짜 사진' 유포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5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는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등도 어떤 식으로든 경선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봉우 기자



후광?

자유한국당 이인제 총남지사 후보가 18일 김종필 전 총리를 방문해 총남지역 보수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김종필(前) 전 총리 자택을 찾아 응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김 전 총리는 자유한국당이 총남지사 후보 찾기 어려움을 겪던 지난 2월 '이 전 최고위원이 준비가 가장 잘돼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말해 이 후보의 총남 결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총재님의 응원을 전해 듣고 뭉치를 내 총마를 결심했다'면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제가 지사가 돼 지방 경제라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특비전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제 JP는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총남을 만들고 당선돼 다시 찾아와달라"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스스



한국노총전남본부 노동자 대상 캠페인

영암 삼호읍 영암대불 부두서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 참가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지난 19일 목포지역 노조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삼호읍 대불부두 입구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가졌다.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전남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므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는 작업절차 준수와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체계구축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남지역이 선도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상생



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으로 근로자와 가족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전남본부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

2018
05.02wed ~ 05.07mon

죽녹원 및 관방제림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JeollaNampo |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